

추억의 동그라미

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던
동그란 원형교사에서 함께 배우던 우리는
그처럼 동그란 뺏지를 달고 다녔어요.
오십여 년 전 자긍심을 주던 동그라미...

쭈뼛거리며 들어간 교무실에서
미술선생님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모형조각을 보았어요.
곡선의 기둥 위에 공처럼 동그라미 세 개가 놓여
마치 세 친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같았어요.

얼마 후 그 모형조각은
원형교사 앞에 커다랗게 동그란 분수가 되어
멋지게 우리 앞에 나타났지요.
지금도 생생하게 그려지는 그 모습...

생활관 실습은 가정과 수업의 일환이었지만
한밤중에 잠도 안자고 그 동그란 분수 가를 돌며
자체 미인대회를 개최했던 철부지들은
다음 날 수업시간에 꾸벅꾸벅 졸았지요.

수많은 세월이 흘러
사시사철 머리에 백설을 이게 된 우리가 학교를 찾았을 때
아련한 추억이 서린
동그란 원형교사와 동그란 하얀 분수 모두 사라졌지요.

우리가 돌을 주워내던 운동장에
네모난 교사가 두 겹으로 들어서고
동그라미를 모르는 까마득한 싱그러운 후배들이
타이가 없는 새 교복을 입고 등굣길을 달려오네요.

시간이 아무리 흘렀어도
추억에 잠기면
지나간 것은 모두 아름다워서
우리를 빛나게 하던 동그라미가 그리워집니다.